

보성군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시행

(주)보성교통과 업무협약 체결...10월 1일부터 적용 김철우 군수 "학생들 교통비 부담 크게 줄어줄 것"

보성군은 16일 (주)보성교통과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는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100원 버스 적용대상은 초·중·고등학생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며 농어촌버스가 운행하는 전 구간에 적용된다.

청소년 100원 버스는 농어촌버스 탑승 시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현금 결제 시에는 기존 단일요금(80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보상

금은 군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2017년도부터 시행한 천 원 버스에 이어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시행으로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는 보성군 민선8기 공약사항이며, 이번 정책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 효과가 기대된다.

보성군은 최근 5대 분야 81개 단위사업에 대한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했으며,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9월 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성=김덕순기자



광양시, 저수지 4곳 토종어류 붕어·잉어 21만 마리 방류

광양시는 내수면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9월 16일 지역 내 저수지 4개소에 시 관계자, 지역주민과 함께 어린 붕어·잉어 21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붕어·잉어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전장 4.0cm 이상의 건강한 개체들로, 어업인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시는 2004~2022년 은어, 메기, 동자개 등 약 440만 마리의 지역토산어종을 방류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과 지역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건강한 내수면 어종 방류를 계속할 방침이다.

광양=김지영기자



고흥군, 일반음식점 영업주 친절서비스·위생교육 실시

고흥군은 16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300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공영민 군수가 직접 강사로 나서 「최고의 친절, 환한 미소로 감동 주는 고흥」 주제로 친절서비스 특별강의를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은 친절서비스·위생실천 다짐 결의문을 채택하여 음식점 종사자들이 자발적인 친절의식을 갖고 이용객들의 감동을 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해 친절서비스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공영민 군수는 "음식은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이고 고흥군 이미지는 음식점의 손맛과 친절한 미소에서 시작된다"며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맛있는 고흥의 음식과 친절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고흥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순천시, '경전선 우회 노선 반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과 간담회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 건의

순천 일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이 최근 경전선 우회 노선을 반대하는 서명부를 순천시에 제출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은 언론 보도 등 나온 내용을 보면 순천시에서 결정해 국토교통부에 건의 한 노선(안)대로 경전선이 서면을 통과할 경우 소음피해 등이 예상되는데, 우회 노선(안)에 대한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민원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을 들어 민원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순천시와 시민들은 오는 10월 예정되어 있는 경전선 순천~광주 송정 구간 전철화 사업 기본계획 확정 고시 발표를 앞두고 도심 통과 반대와 함께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우회 노선 반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4일 서면 우회 노선 반대 서명부를 제출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과 현재의 상황과 추진 경위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우회 노선(안)은 결정된 사안 아니며, 기존 도심 통과 반대 대안일 뿐이다"며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확정 고시가 연기되면 우회 노선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은 "순천시의 우회 노선(안) 추진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소문의 부재에 따른 오해가 있었다"며 "순천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선화했다.

앞서 순천시는 한 번 놓으면 100년을 사용하는 철도가 도심 통과하는 기존 노선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후손들에게 물려줄 도심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우려해 우회 노선(안)을 건의하고 있지만 우회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

부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적이 있다.

현재 노관규 순천시장은 김영록 전남지사에 대해 경전선 도심 우회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대통령 정무수석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잇따라 면담하며 10월에 예정된 경전선 기본계획 확정 고시를 미뤄줄 것을 요구했다.

또 8월에는 지역 40여 개 시민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경전선 도심 통과를 반대하는 상경 집회를 여는 등 순천시와 시민들은 경전선 도심 통과에 반대하고 우회 노선 반영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국가산단 가로환경 정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여수국가산단공장장협의회·여수상공회의소·한국산업단지공단전남지역본부

여수시와 여수국가산단공장장협의회, 여수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가 16일 시청실에서 쾌적한 여수국가산단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장갑중 공장장협의회장, 이용규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영동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상호협력과 공동 재정부담을 약속했다.

그동안 여수국가산단 인근 도로변과 주차장 등에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방치돼 국가산단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해왔다.

또한 대기업 위주로 사업장 주변 청결활동만 진행돼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산단 근로자의 의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단체는 '내 사업장 주변 청결유지' 이행 확산과 공동 재정부담 등 쾌적한 국가산단 이미지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국가산단 이면도로 등 5개 구간 150km에 제초작업 및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고,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현수막도 계획할 예정이다.

여수=김지영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